● 타운뉴스 칼럼

귀한 인연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한낮에 공원을 걷다가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그 당시 총각이었던 그는 혼인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고 했다. 아들이 테니스를 치겠다고 해서 코트에 데려다 주고 걷던 중이라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저녁에 다시 만나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

25년 전, 필자는 미국에 와서 시작했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좀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찾고 있었다. 대여섯 달 놀다보니 일이 하고 싶었다. 일단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비즈니스를 찾기로 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우리는 만났다. 나이 차이는 꽤 났지만 의기투합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퇴근 후에도 함께 어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먼저 퇴직을 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불과 일 년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나이 차이도 뛰어 넘어서– 몇 해에 한 번 정도는 만나며 지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들과 합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단둘이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펜데믹 전이니까 한 5년 정도 지났다. 당시 또 다른 동료와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생긴 일로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동료와 둘이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참하기로 했던 그가 중간에 짬을 내서 일부러 약속 장소까지 와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갔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접할 마음으로 나갔다. 여전히 그는 영화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북경영화학교 연출과 출신으로 북경에 체류하며 지아 장커나 왕 샤오 슈아이와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과 교류했으며 이후 한국에 돌아가 박철수 감독의 연출부에서 생활하며 경험을 쌓았다. 1998년 미국으로 이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영화작업에 몰두했으며, 2002년 LACC 영화과를 수료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다큐멘터리였으며,
<Listening to the voice of a wind>(2005), <경공>(2005), <바람으로 남다, 징키스칸>(2005), <아시아 영화 기행, 중국>(2005) 등을 발표했다. 특히 단편<Today, Mostly Sunny>(2003)은 산타페국제영화제에, 장편 <Listening to thevoice of a wind>(2005)는 시네퀘스트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바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미국 현지 스탭들과 함께 한미공동제작 작품 <허스>를 완성하게 된다. 이 작품으로 그는 2007년 전주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섬세한 감수성과 미장센에 대한 호평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흐름 부문 JJ스타상을 수상했다.

허스(Hers), 오이시맨(2009), 유타가는 길(2015) 등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지금은 앞으로 만들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종업원들이 빨리 갔으면 하는 눈치를 자꾸 보내 왔다. 말로는 10시에 문 닫는다고 했으나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라면서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눈길을 주고 있었다. 영업 종료 시간이 30여 분 남았었지만 그들의 눈총을 이겨내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남은 얘기들을 더 나누다 헤어졌다.

불가에서는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낯모르는 사람끼리 가볍게 옷자락을 스치는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깊은 인연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물며 누군가와 한 직장에서 일하고 퇴사 후에도 만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연 가운데에도 참으로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법정스님은 그의 시 '귀한 인연이길' 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전략) 한동안 이유 없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 내가 그를 아끼는 만큼 /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만큼 / 그가 내게 사랑의 관심을 안 준다고 해서 / 쉽게 잊어버리는 쉽게 포기하는 / 그런 가볍게 여기는 인연이 아니기를 (중략)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이가 / 당신이기를 / 그리고 나이기를 / 지금의 당신과 / 나의 인연이 / 그런 인연이기를

김정중 감독의 다음 작품이 전 세계 영화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대작이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

chahn@townnews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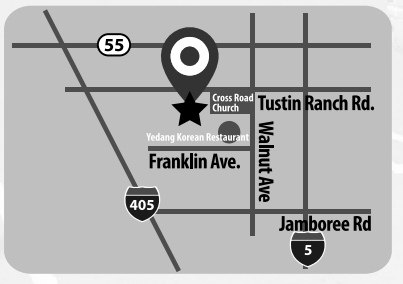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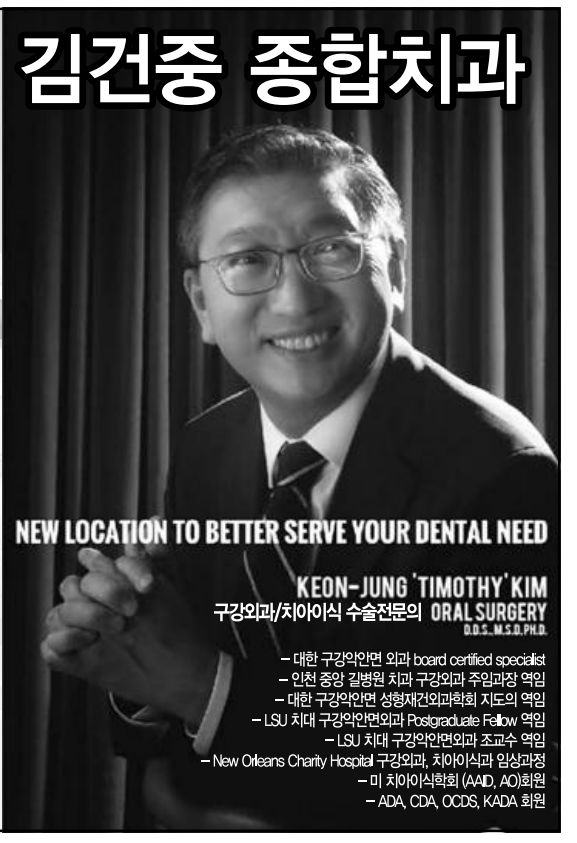
타운뉴스

제1524호 목차

TownNews QR Code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7
세상에 이런 일이 19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법률 21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3
전문인 칼럼 26,27,40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28/50,28/54
건강 37,40,41
깔깔 38
부동산/경제 39
자동차 43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58,60,62,66
사진여행 45
요리 47
종교 50
연예 51,53
안내광고 54,55
Domestic 56
여성 59,61

가주장의사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TEL 대표: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부에나팍, 플러튼,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랜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가든그로브, 어바인 등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9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 · 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프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